

발간등록번호

72-4180000-000137-01

춘천시 제안제도 참여 및 운영실무 안내서

# 당신이 상상하는 춘천을 보여주세요





춘천시 제안제도 참여 및 운영실무 안내서

당신이 상상하는  
춘천을 보여주세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은 시민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과 제도를 통해 시행되는 행정은 비유하자면 물고기가 사는 물과 같고, 모든 생명이 호흡하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국민 삶의 기본 환경이 되는 행정을 시대에 맞게, 주어진 여건에 맞게 끊임 없이 혁신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제안제도의 목적이자 이상이 아닌가 합니다.

시민들의 제안은 행정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현장 적합도와 시민 만족도를 높여 주는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늘 우수한 제안만 접수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항상 적극적으로 제안을 채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제안제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선 중기 문학가인 김만중은 과거를 답습하는 사대부를 비판하면서 “자기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간의 나무하는 아이나 물 길는 아낙네들이 소리 내어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비루하다 할지라도, 그 참과 거짓을 논한다면, 학사대부의 시(詩)도 동격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민의 제안은 어떤 때는 세련되지 않고 다소 설익은 거 같더라도 그 안에는 참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삶이 있습니다.

춘천시 국민제안업무를 주관하는 춘천시 시민주권담당관에서는 “국민제안이 더 잘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궁리 끝에 안내서를 저술하여 제안자와 제안 검토 담당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이 이러한 동기에서 저술된 것이지만, 거의 최초의 시도여서 그 내용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본 서를 발간한 것은 업무담당자와 담당업무가 2년 정도에 한번씩 바뀌는 행정문화를 생각하였을 때 누군가는 감행하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면, 다음 담당자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끊임없이 개정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더 좋은 안내서가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주 바뀌는 행정환경에서도 언제나 그 기준은 우리의 고객인 ‘시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 12.

춘천시 시민주권담당관 참여기획 담당 강용범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 태종 때인 1401년 백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행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지켜져야 하는 주권재민의 가치 실현이고, 행정권력이 수용해야 하는 한계나 원칙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얼마나 이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사실상 제안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이 제도를 운영하는 실무 공무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를 맡다 보니 그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임자의 업무방식을 답습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제안제도의 취지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운영이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회에 제안자와 제안 검토 공무원 모두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보충 의견을 주시고, 일부 부족한 점은 다시 살펴서 다음번 개정 때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12.

춘천시 시민주권담당관 강석길





나의 고향 춘천을 소개합니다 | 소정현[춘천시]

제1회 춘천 국제 어린이 그림교류전에  
중국, 베트남, 춘천시 어린이들이 출품한 작품입니다.

# CONTENTS

## 제안제도를 소개합니다

<b>1</b>	<b>제안제도는 왜 중요한가</b>	제안이란 무엇인가	10
		우리가 누리는 문명은 누군가의 제안이었다	12
<b>2</b>	<b>제안제도의 역사와 국민제안제도</b>	역사 속의 제안제도	16
		국민제안제도의 발달과정	17
		국민제안제도의 내용	18
		공무원 제안	21
<b>3</b>	<b>제안제도의 발달을 가로막는 것들</b>	제안 발달의 장애물	24
		장애물의 제거	26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	27
<b>4</b>	<b>민간기업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하는가</b>	기업은 왜 아이디어 발굴에 사활을 거는가?	30
		구글과 테슬라의 개방주의	32
		삼성의 사내제안제도, 모자이크시스템	34
		폐쇄적 기업, 애플의 개방성(?)	34
		미래이공업의 유토피아 경영	35



5	춘천시 제안제도의 발전 방안	춘천시 제안제도 변천사	38
		제안제도의 개선과제	40
		제안제도 개선방향	41
6	제안자와 제안검토자가 알아야 할 제안운영 메뉴얼	제안제도의 개요	48
		제안제도 운영요령	50
		제안제도를 살리는 제안검토 노하우	59
		제안자가 알아야 할 제안 노하우	60
		제안제도 Q&A	62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실시합니다

제안 우수사례

1	춘천시의 제안채택 및 시행사례	70
2	다른 기관의 제안채택 및 시행 사례	92
3	제안제도 밖의 시민참여 사례	102



제안제도를  
소개합니다



# 1



## 제안제도는 왜 중요한가

### 제안이란 무엇인가

제안제도에서 말하는 제안이란 어떤 문제를 개선하거나 기존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발생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 보면 제안의 형식이나 양태는 이보다 훨씬 폭넓고 다양하다.

제안의 판단 척도도 그 가치기준에 따라 효율성과 경제성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민주적 조직문화 형성과 같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제안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채택하는 주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공익”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면 민간기업은 “이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01

• **발명, 실용신안 등도 제안이 될 수 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하고, 발명과 같이 고도화된 기술은 아니지만 기존의 형상, 구조, 조합 등을 개량한 것을 실용신안이라고 한다.

발명이나 실용신안 등을 창작하여 등록한 후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결과물의 적용을 제안하는 것도 제안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한 제안은 금지된다.

02

• **특정한 제도를 창설하거나 도입하는 것도 제안이 될 수 있다.**

제안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채택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고,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제안이 될 수 있다.

03

•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국민제안은 청원·민원과는 구별된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 요청내용을 서면으로 진술하여 국가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이다(청원법 제4조 및 제6조).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서,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제기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8조).

이에 비하여 국민제안은 시책, 제도, 기타 사안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도입은 접수받은 기관의 자유심사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제안을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제안을 민원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제안제도가 추구하는 목표, 즉 창의와 혁신은 달성되기 어려워진다.

# 우리가 누리는 문명은 누군가의 제안이었다

## 01

### · 문명의 발달과 제안

문명의 총아였던 산업혁명은 일종의 제안의 시대였다. 비행기,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최초에 누군가 초기 제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개선해가면서 지금처럼 고도화 된 것이다. 제안을 채택해준다는 것은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생각에 큰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제도도 발달하게 되었다. 주식회사의 경우, 모아진 돈은 규모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명의 주주가 조금씩 투자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회사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데서 오는 위험부담은 어디까지나 개인별로 투자한 지분에 한정되는 것이니까 꽤 안전한 방법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제도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 많은 사람은 사기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획기적인 제안이란 이처럼 처음에는 대접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법이다.

## 02

### · 공공조직에서의 제안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공직자들은 사업아이템을 찾는 기업의 아이디어 사냥꾼들처럼 좀 더 마음을 열고, 매와 같은 눈으로 제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제안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공직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공공조직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서 오는 문제이다.

**첫째,** 소수가 결정한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사무가 집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법이 될 수도 있고, 지침이나 편람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사무집행 직원이 지침이나 편람의 불합리성을 발견하고 문제의식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그 지침을 개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한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침이나 편람은 대부분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제정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직적 결정구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최소 5단계 이상의 결재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창의성 보다는 기존 사례의 답습과 다수의견의 절충형태로 결정되기 마련이다. 새로움 보다는 과거 사례와 경험이 더 중요해지는 구조이다.

**셋째,** 어떤 문제들은 개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된다. 기업이라면 잠재력 있는 사원을 뽑아 그들의 생각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 회사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은 조직의 철학과 가치라고 일컫는 조직 수장의 생각을 전면에 내걸고 여기에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열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주어진 틀에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여덟 가지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방식의 업무 흐름은 업무를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직 말단에서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공직자의 창의성을 점점 퇴화되게 만든다. 결국 영혼이 없고 상대 민원인에 대한 공감능력도 없는 공직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경직된 생각이 고착화되다 보면 타인이 한 제안을 접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된다. 실제 제안을 채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직자들이 내세운 것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 다른 기관이 이미 채택한 것이므로 우리는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 그렇다면, 최초로 발명하여(제안하여) 어떤 회사들이(채택하여) 공급하는 전 기나 자동차, 비행기들은 왜 여러 회사가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공급 하는가?
  - 또 최초로 발명품을 경험한 고객들만 편익을 누려야 하는가, 아니면 널리 보급하여 대다수가 발명의 편익을 누려야 하는가?
  - 발명을 보장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들이 발명자에게 특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아이디어의 결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제도가 제안자를 보상하는 것은 제안의 결과를 보급하려는 목적때문이다.
  - 신규 시책개발 시 타 기관 사례를 섭렵하는 경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예산이 수반되는 제안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 제안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므로 예산이 수반된 제안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그냥 받아들이기 싫은 것에 사족을 단 것에 불과하다.
  
- 조례나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 훌륭한 제안 중에는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들도 많다. 드론의 산업적 잠재성이 주목받으면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19년에 제정되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항공기가 발견되자 항공법이 생겨난 것과 같이 훌륭한 제안이 있으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법규, 조례, 규정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필요가 있다.
  - 그러므로 제안의 가치를 먼저 따져야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견해이다.



무지개길 산책로 | 이다원[춘천시]

# 2



## 제안제도의 역사와 국민제안제도

### 역사 속의 제안제도

유발하라리(Yuval Harari)가 사피엔스라는 저서에서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고대 인류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탁월한 상상력 때문이었다고 한다. 탁월한 상상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앞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사회 집단을 조직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직의 규모면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수십명에 불과했다면, 호모사피엔스는 100명 이상이 가능했다고 한다.

원시사회에서 제안이란 생존수단 그 자체였다. 누군가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도구를 창안하고, 어떤 동물을 잡을지 어떤 집단들과 전쟁을 벌일지 제안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제안과 소속 집단이 상호간 제안을 순환시키면서 어떤 집단은 살아남고, 어떤 집단은 멸망하였다. 다시 말하면 훌륭한 제안을 채택한 집단은 번영했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인 집단은 쇠퇴한 것이다.



## 국민제안제도의 발달과정

일본의 식민지배를 끝내고 남한에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국민제안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1971년 제정된 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에 ‘건의’를 민원의 한 종류로 취급한 단편적 규정이 보일 뿐이다.

아마도 그 당시 정부는 일본이나 유럽의 정부제도를 모방하여 정착시키기도 벅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의 적극적 참여나 제안을 꺼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저항으로 달성한 1987년 개헌으로 정부 여러 분야에서 투명성과 국민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이 진행되었다. 1994년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도 제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가 1997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現민원처리에 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제40조에 국민제안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총무처(현재의 행정안전부)가 모든 제안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2006년도에 위의 법 제31조의 개정으로 모든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변경되었고,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제안심사의 원칙들을 규정하였는데 구조면에서 혁신적인 것이었다.



# 국민제안제도의 내용

## 01

### · 국민제안의 목적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

## 02

### · 국민제안의 자격

모든 국민은 모든 행정기관에 국민제안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 국민제안 규정 개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을 할 수 있다.

## 03

### · 국민제안의 의미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제안을 제출하고, 접수기관은 제안을 접수하여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행정기관 담당자는 제안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업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 심사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실시 가능성은 제안의 구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너무 추상적이고, 현재에 없는 기술을 제안한다던가, 접수기관 관장 사무 영역 외의 것을 제안하는 경우 실시 가능성은 부정된다.
- 창의성은 다른 말로 신규성을 뜻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 효율성이란 이전의 방식보다 적은 노력, 적은 비용, 빠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효과성이란 제안을 시행할 때 기대하는 결과나 목표가 달성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제안 시행이 원인이고 기대효과가 결과라면, 양자간에는 합리적 판단에 의해 높은 가능성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할 것이다.
- 적용 범위는 제안의 적용이 가급적 일반적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특정하고 개별적인 부분에만 제안이 적용된다면, 이러한 것은 민원에 가까운 것이다.
- 계속성이란 제안이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접수된 제안을 관련부서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만약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관별로 구성하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종 결과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 05

### · 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별 국민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데, 해당 기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2020년 4월 국민제안 규정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기관 내부 인사로 구성되어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심사위원회는 불채택한 제안을 제안자가 재심사하는 경우나, 자체 우수 제안의 결정을 할 때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제안심사위원회의 역할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06

### · 채택된 제안의 실시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새로운 시기를 정해 통지하여야 한다.

## 07

### · 국민제안의 보완·개선

제안 자체로 완벽하여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경우일 것이다. 제안 자체는 다소 어설피고 과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핵심적 아이디어가 훌륭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토론, 투표, 평가 등을 거쳐 그 제안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치기 전에 제안을 검토하는 담당자가 개방적인 자세로 제안의 핵심을 근간으로 하고, 공직자로서 담당자가 가진 전문성을 기초로 지엽 말단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08

### ·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3년간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도 불채택을 결정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불채택 제안도 여건 변경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09

### · 실시 성과의 측정(제23조)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성과(업무개선, 예산절감,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성과 측정시 고려될 사항은 행정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효율성 제고, 사고예방, 근무환경 및 조건 개선 등이며, 우·수·미·양·가로 측정 등급을 부여 한다.

## 공무원 제안

공무원 제안제도는 그 취지나 운영 방식이 국민제안제도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관련 법규가 공무원 제안규정(1973년 제정,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제안의 효과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상여금 제도는 기업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제안을 시행하여 5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면 절감된 금액의 일부를 상여금으로 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게는 커다란 이익이기 때문이다.





베란다에서 본 풍경 | 김영일[춘천시]





국민제안은  
시책, 제도, 기타 사안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도입은 접수받은 기관의  
자유심사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 3



## 제안제도의 발달을 가로막는 것들

### 제안 발달의 장애물

사학자들은 원시시대는 생산물이 적어 다뤄야 할 이유가 적었기 때문에 지배질서도 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제안들은 합리적으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농업이 사냥보다 안정적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상황이라면 농업에 매진하는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다.

이후 지배질서가 확립된 고대국가 시대부터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신분질서 때문에 어떤 산업은 천시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육가공업(백정)은 멸시되었고, 발전하지 못하였다.

신분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생업도 제한되었다. 경제를 지탱하는 농업·수공업은 천시되었고, 유럽에서는 종교적 원칙이 삶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었으며, 중국이나 조선은 유교적 원칙이 삶을 지배하였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아이디어는 비록 개인의 머리 속에는 있을지라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이 종교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러한 종교적 또는 신분질서 유지를 위해 두었던 제약들은 르네상스와 더 이후에 태동한 산업혁명으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 수만년 동안 인류가 걸어온 여정보다 더 획기적인 문명이 단 2~300년 만에 출현하였다.

그 원동력은 제안이었다. 증기로 작동하는 엔진, 전기, 양력(揚力, lift)의 이해와 비행기의 발명, 수십년만에 인공지능 단계까지 발전한 컴퓨터 등 수많은 문명의 산물이 현실화된 것은 누군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다수가 창의성을 더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제도(자본주의, 기업) 역시 적합한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제안의 각축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 장애물의 제거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하나의 공공조직 내에 과거 종교적 또는 신분질서 유지 장치와 같이 제도적 또는 관례화된 편견이나 규칙들이 있지 않은가?

**둘째,** 그러한 제약이나 규칙이 공공의 관점과 경제적 효율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합리적인가? 또는 비합리적이고, 개인이나 부서의 지위나 권위 유지를 위해 설정된 것인가?

**셋째,** 제안의 질이 충분해질 만큼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가? 즉,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가 외부에 충분히 제공되어지고 있는가?

결국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자유로운 생각을 어떤 틀에 가두거나 왜곡시키는 조직 문화가 있다면, 이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이클 스펜서(Michael Spence, 1943~)가 1973년 『경제학 저널(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발표한 「노동시장의 시그널링(Job Market Signaling)」이라는 논문에서 정보 보유량의 격차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신호이론을 제시하였다. 더 좋은 상품과 덜 좋은 상품이 있다고 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면, 상품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노동시장에서 이력서에 적힌 ‘학력’이 핵심 정보이다.

그런데 종종 행정기관에서 위에서 소개한 이론과는 달리 반대 방향으로 신호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즉, 조직의 수장은 직원들의 핵심 능력(생각, 업무성과, 과거 경력 등)을 신호정보로 수용해서 적재적소에 그 능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심은 없고 수장의 생각을 주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되면 각 직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지고, 획일화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또한 능력과는 무관하게 겉으로 수장의 생각과 기호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고, 이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 실제 성과와는 무관하게 구호만 무성한 행정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제안을 검토하는 각 담당자가 자기 기준이 너무 투철하다보면, 훌륭한 제안이 사장될 수 있다. 우선 제안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부족한 정보는 추가로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차피 선택해야 한다면 나쁜 것을 선택(역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

---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도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다르다.

공공의 선(善)을 따르자면, 국민제안을 검토하는 공무원들이 훌륭한 제안은 채택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주는 것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안을 검토하는 각 담당자들이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그저 업무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제안을 채택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과업 하나를 더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다소 비약적인 상상이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개인의 욕구와 이익을 긍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짜여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보기 바란다.

그렇다면 아무리 공직이라 하더라도 제안을 검토하는 담당자 개인들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적극적으로 제안을 채택하게 하는 동기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는 소극적이어서는 안되고,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정도여야 한다. 또한 각 공직자들이 기꺼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서술하는 민간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해보기로 하자.





수많은 문명의 산물이  
현실화된 것은 누군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창의성을 더하는 과정이었다.





소양강처녀 | 이재현[춘천시]

# 4



## 민간기업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하는가

### 기업은 왜 아이디어 발굴에 사활을 거는가?

민간기업은 왜 아이디어에 목말라 하는가? 이유는 돈이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쉬운 산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재화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판매했을 때 판매금액에서 판매할 때까지 들어간 총 비용을 빼면 그것이 바로 이윤이기 때문이다.

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유통비, 영업비용 등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계산은 판매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판매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재고로 남는다면 의미가 없다. 더구나 비슷한 분야(경제학에서는 시장\*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구분한다)에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경쟁을 하는 기업이라면 공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판매되는 것이 아니다.

\* 여기서 시장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동종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연결시켜주는 추상적 영역이나 범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쟁력을 위한 노력의 방향은 크게 비용 절감, 품질 개선, 시장 선도제품 출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용 최소화는 재료비, 인건비, 유통비 등 공급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품질개선은 설계와 디자인을 최적화하고 제품생산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여 동종의 경쟁업체보다 더 질 좋은 제품, 즉 시장에서 환영받는 제품을 내놓는 것이다.

시장 선도제품 출시는 기존의 관념과는 전혀 다른 제품을 출시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2021년 현재 삼성전자가 내놓은 폴더블 폰이 그 예일 수 있다. 동종의 경쟁제품이 시장에 거의 없기 때문에 삼성의 폴더블폰은 다른 경쟁업체(예를 들면 아이폰)가 같은 개념의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과정을 눈여겨보면, 결국 각 세분화된 기업활동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속으로 만들던 것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재료), 노동력이 투입되던 것을 기계화하자는 제안(인건비), 전화나 문자전송에 그치던 휴대폰을 컴퓨터 수준으로 대체한 스마트폰과 그 스마트폰의 개념이 가능하도록 ‘앱’이라는 개념을 창안해낸 것 등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군가의 제안이었다고 생각해보면 기업활동은 아이디어 제안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도 그에 못지 않지만, 제안제도 운영은 지나치게 제도화되었고 복잡하고 비실질적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성을 위해 기업의 제안제도를 몇 가지 소개하기로 한다.

## 구글과 테슬라의 개방주의

제안제도는 개방주의를 그 배경이념으로 하고 있다. 특정 조직 내에 특정한 업무를 맡은 사람만 그 업무를 혁신하고 잘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 고객, 전국민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 비밀주의에 맞서는 개방의 기업문화는 점점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 구글



일상에서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특정한 주제에 관한 정보를 물어보려고 할 때 개인 성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효과적일까? 아마도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많은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산속에 은거하는 사람보다 도시에서 폭넓은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글을 설립한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이 사업기반으로 창안한 ‘백럽(BackRub)’이라 불리는 검색엔진이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인터넷에 축적된 많은 데이터에서 의미를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어떤 웹사이트에 연결된 다른 웹사이트의 수를 추적하여, 연결된 사이트의 수가 많은 사이트에 수록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상위에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 속에서 더 많은 개방성을 확보한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가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전세계 인터넷 기업을 선도하는 구글의 경영원칙은 개방성이다. 구글은 기업 내부보다 바깥에 더 많은 정보가 존재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성장의 원동력을 얻고 있다. 한 가지 예가



애플의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에 대적할 안드로이드를 구글 연구진들이 만들었을 때 이를 공개하여 삼성이나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많은 이용자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구글은 다음 단계의 사업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가 아니다.

또한 구글은 경쟁에 치중하는 것을 지양한다.\*

경쟁문화는 직원들이 최고위층의 생각이나 성향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 생각에 맞춰 모방하려는 경향을 갖게 한다. 이러한 태도는 끝없는 평범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만약 경쟁이 아니라 동료들 간의 수평적 개방을 중요시한다면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혁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의 단위는 사람이지만 조직은 아니다. 조직은 서로 다른 개인이 모인 것이지만 스스로 생각하지는 못한다. 개인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고 각기 다른 창의적 기술을 개발하여 공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테슬라



TESLA

테슬라는 대부분의 특허기술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초기 기술 중 중요한 것은 슈퍼차저(전기차를 빠르게 충전해주는 기술)였는데 전기차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다.

기술공개는 전기차 시장에 다른 기업들이 빠르게 진입하는 대신 내연기관 자동차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

어차피 하나의 기업이 전세계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시장이 전기차로 재편되는 것은 테슬라에게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개방주의가 회사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생각의 방향이 다른 것 뿐이다.

\* 참고한 자료 :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에릭슈미트 / 조너선 로젠버그 / 앨런 이글

## 삼성의 사내제안제도, 모자이크시스템

삼성은 2014년 모자이크(MOSAIC)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내 플랫폼으로 직원들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특정업무 주제를 올리면 다른 직원들이 코멘트를 해주고, 아이디어 마켓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 형식으로 올릴 수도 있다. 퀘스천스에 질문하면 직원 누군가가 그에 대해 답을 해주기도 한다.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나 핵심적인 것은 사내 인재들의 서로 다른 재능과 식견을 집단지성 형태로 모아 회사의 역량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 폐쇄적 기업, 애플의 개방성(?)

기업이 전략적으로 내건 슬로건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애플의 폐쇄성은 유별나다고 할 수 있다.

애플 제품 자체는 우아한 그래픽, 직관적 인터페이스 등 매우 뛰어나지만, 타사 컴퓨터에서 파일이 안 열리는 등 호환이 안 되기로 유명하다. 물론 자사 제품 간에도 일부 파일을 이동할 때 아이튠즈라는 매개 프로그램으로 동기화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불편하다.

그런데 한 가지 면에서는 개방을 선도하였다. 원래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라는 게 있었다. 스마트 폰의 초기개념이라기 보다는 소형 컴퓨터라고 보는게 맞겠지만, 스마트폰의 전신이다. 잘 아는 상식이겠지만,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하드웨어 성능이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cpu나 메모리 용량, 그래픽 카드 성능이 컴퓨터의 능력을 결정짓 듯이...

그런데 애플이 아이폰을 발명하면서 개념을 반전시켰다. 하드웨어 용량보다 거기에서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경량화하는 것에서 답을 찾은 것이다. 이 경량화된 프로그램을 앱이라 부르는데, 애플은 아이폰을 확산시키기 위해 일정 기준 하에 누구나 앱을 제작하여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수없이 많은 앱이 만들어지고 이 앱이

편리함 때문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잘 팔리게 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폐쇄적 기업 애플의 이유 있는 개방정책이고, 삼성 등 안드로이드 체계의 스마트폰 사업도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IT산업에서는 더 빨리 개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용자로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 미래이공업의 유토피아 경영

미래이공업(未来工業)은 일본의 전기용품 중심의 제조업 중소기업이다. 2014년 기준으로 매출 352억 2800만엔(한화 약 3천 6백 2십억원) 규모의 기업이다. 이 회사의 제품은 1만 8,000여 종에 이르는데 모두 편리하고 독특하여 시장의 각광을 받는다. 그런데 이 회사 제품의 90% 정도가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낸 것이다. 회사 곳곳에 아이디어 표어를 붙여놓고 일상적으로 제품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어떤 아이디어든지 거절하거나 면박을 주지 않고 제출하기만 하면 건당 500(약 5천 원)엔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러한 제안은 심사를 거쳐 실제 제품화 여부를 판단한 다음 제출 보상금 외로 등급별로 보상한다. 1년에 1만건 가량의 아이디어가 모이며, 어떤 직원은 수백건의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유로운 아이디어 표출은 회사의 조직문화 때문에 가능하다. 무능하다고 무시하거나 유능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제도나 딱딱한 직급 질서가 없다. 회사의 정년은 70세이고, 전 직원이 정규직이다. 근무시간도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15분인데, 처음 8시간이었다가 직원들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한다. 인센티브 기반의 성과주의는 없고 승진은 나이와 근속연수 순으로 이루어 진다. 1년에 약 140일 휴가를 갈 수 있고 자녀 한명당 3년의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다. 그런데도 봉급은 동종업종 보다 10% 이상 높게 주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기 때문에 직원들은 짧은 근무시간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가 경영자의 강요가 아니라 직원 스스로 좋아하는 회사를 위한 다짐이 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유토피아적인 문화 때문이다.

\* 참고 :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야마다 아키오 지음, 남혜림 옮김, 처음박스





경쟁력을 갖추려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갔어요 | 이루라[춘천시]

# 5



## 춘천시 제안제도의 발전 방안

### 춘천시 제안제도 변천사

춘천시 제안제도는 2006년 처음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하다가 여러 번 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징적인 요소의 변화내용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 제안의 정의

처음에 제안의 정의는 시책발전, 행정 효율·능률 제고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예시를 이보다 훨씬 다양하게 들어 규정하고 있다.

#### ■ 제안자격

2006년 처음에는 춘천시 관내 거주민만 제안할 수 있도록 자격에 제한을 두었으나 현재는 전 국민이 제안할 수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다.

## ■ 보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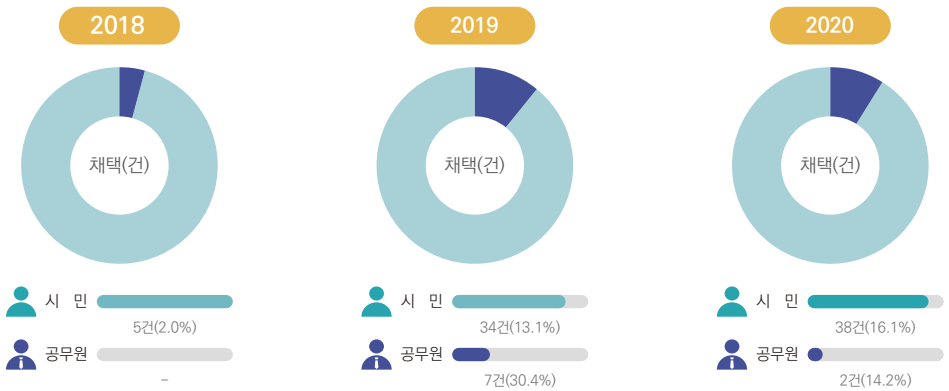
2006년 제정 당시 채택된 제안은 최소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등급을 정해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금액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당시 조례는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나 현재는 심사대상 제안에 해당하면 기념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 ■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2018년까지 제안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는데 각 국의 국장으로 구성되다 보니 부서에서 올라온 의견대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어 대체로 1년에 2~5건 정도가 채택됐으나 2019년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춘천시시민주권위원회가 제안심사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하자 채택율이 높은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춘천시의 연도별 제안채택율 변화



\* 접수는 연간 300 ~ 400건으로 매년 유사한 수준

## ■ 공무원제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는 1998년 춘천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정으로 처음 시행되었다가 2011년 폐지되고,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으로 편입되었다. 다른 규정은 국민제안과 대동소이하나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과 상여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제안제도의 개선과제

공공기관은 그 기관의 업무 성격상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각 기관의 운영은 법이나 지침에 매여 있다 보니 자율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춘천시가 제안제도 운영 경험에 비추어 보아 제도개선 제안 보다는 디테일한 현장의 일들이 제안의 주제로 더 많이 제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입법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사항은 채택이 어렵다는 점을 제안자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춘천시 제안제도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제안제도 발전을 위한 10대 개선과제〉

- 1 소수의 타지역 거주자가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춘천시 상황을 잘 모르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시민의 시정 참여의 촉매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최근 자료를 보면 관내 거주자의 제안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을 밑돌고 있다.
- 2 담당 부서 검토 단계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불채택을 전제하고 검토하는 사례가 있는데,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경향일 것으로 추측된다.
- 3 삼성전자나 구글 등 주류 회사와 같이 춘천시 공무원의 내부 제안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제안은 매년 10건 미만에 그치고 있다.
- 4 채택 제안인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고등급 제안은 없으며, 평범하거나 하위 등급의 제안들이 주를 이룬다.
- 5 자기 업무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 형식으로 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 6 제안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여러 단계이고 복잡하다.
- 7 제안주제가 제도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데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 8 행정정보의 대시민 공개는 제안의 질을 끌어올리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 9 제안의 보상체계가 지나치게 좁고 기계적이다.
- 10 제안제도와 유사한 다른 제도가 너무 많아서 참여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 제안제도 개선방향

### 01 · 춘천시민의 제안 참여 확대

2006년 처음 춘천시민제안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제안 자격은 관내 거주민에 한정되었으나, 2019년 조례개정으로 춘천시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은 2006년 5월 처음 제정시부터 모든 국민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에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타지역 주민도 춘천시에 제안이 가능했다.

이와 같이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제안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제안제도의 목적 때문이다. 제안제도의 목적은 오로지 창의적인 고안이나 제안을 통해 시책을 개발하고 행정제도와 운영을 개선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누가 제안했는지는 안 따지고 오로지 제안의 내용만을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춘천시 상황을 잘 아는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제다.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은 주민자치회나 참여예산제도와 같이 다른 틀로도 가능하지만, 누구나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안제도가 편리하다.

향후 주제별 제안 공모나, 읍면동별 또는 거점별로 제안을 받는 방식 등 시민의 제안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 · 소극적 제안검토의 개선

접수된 제안을 담당부서에 전달하면 보통 소관업무 담당자 책임하에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제안검토 업무는 추가업무일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 2006년 제정 국민제안규정 제4조 제1항

또한 접수된 제안을 채택하는 검토를 했을 때 새로운 업무가 생긴다는 점도 가급적 채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려는 동기가 된다.

한편으로 업무담당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받는데, 다음연도 신규사업 발굴 시점에 이러한 경향은 특히 두드러진다.

그러면 담당자는 제안 채택은 두려워하면서도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 책이 필요하다.

**첫째,** 제안을 받아들인 것과 스스로 신규업무를 발굴한 것이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심지어 신규업무 발굴시 제안을 받아들이고 발달시킨 것이면 인사 가점 등의 보상을 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문화가 조직내 정착된다면 이것을 제안감수성\*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둘째,** 내 업무는 이미 완벽하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직 내부업무는 잘 짜여진 제도적 틀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외부의 견해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이다. 열정 있는 담당자들은 여러 외부 자료를 섭렵하고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는데, 제안도 외부의 의견을 내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 좋다.

**셋째,** 제안의 형식이나 아이디어 표현의 어설피름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정제된 자료나 계획서만 다루던 공직자로서 일반시민이 만든 제안서가 바로 와 닿지는 않겠지만, 좀 부족한 형식이어도 그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으면서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소수를 선별해서 시행하던 제안시행 보상금을 제안 검토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 춘천시 시행하는 시행부서 보상제도는 실행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연말에 포상하고, 실시 담당자에게는 근평가점을 주는 정도이다.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7조 2항은 실시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제안을

\* 2006년 제정 국민제안규정 제4조 제1항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안 아이디어에 약간의 수정이나 보완을 하여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발전적 의견을 첨가하여 채택한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하거나 더 파격적으로 채택 자체에도 약간의 보상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03

#### • 내부 공무원의 제안 활성화 추진

행정업무 경험이나 지식은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내부 제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 행정망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상적인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모자이크 시스템과 같이 거시적 행정방향을 제시하면, 공무원들이 구체적 시행과제와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시책을 보충하여 전체 그림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

#### • 제안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제안자의 식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찰력 있는 제안자가 우수제안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 다시 말하자면 제안의 양이 많아진다고 우수제안이 반드시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안의 질이 좋아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안 참여자를 많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양이 쌓이면 질이 좋아진다는 양질전환의 법칙이 일정정도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안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이 때문에 필요하다.

## 05

### · 공무원의 자기 업무에 대한 제안

업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는 것은 통상 업무담당자의 고유 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대한 제안은 안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겠지만, 이 것도 유의미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제안에 해당한다. 원래 1973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제안제도에는 자기 업무에 대한 제안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6년 전면 개정으로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자기 업무 관련 제안은 금지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로 잡기만 하여도 많은 제안이 발굴될 것이다.

## 06

### · 복잡한 제안 절차와 보상체계의 단순화

제안제도가 다수가 쉽게 참여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단 제안자가 편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어느 정도 참여방식에 대한 단순화를 구현하였다. 그러나 각 기관의 접수와 심사 단계에서도 직관적이고 간명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제안 포상 제도를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 소수를 선정하여 포상하기보다는 다수에게 적은 포상을 주는 것이 절차상 간단하다.

참여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주거나 채택 제안은 무조건 소액의 상품권을 주는 방법도 바람직 하며, 일부기관은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제안 양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이 제안심사의 기준이지만 이것을 문서 양식으로 구분해놓아 억지로 여기에 맞춘 제안서 또는 제안검토서가 작성되게 할 필요는 없다.

## 07

### • 제안 주제의 다양화

보통의 제안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으나, 춘천시의 시책과제를 제시하고 해결 대안을 제안하는 주제로 다양화 되어야 한다.

신 제안제도를 설명한 문헌에서는 이를 ‘목표 달성형 제안’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제안은 시민에게 행정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가능 하다.

## 08

### • 제안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관리

시정연구모임이나 지역별 주민 건의 사업 발굴과 같이 제안제도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행 구조가 유사하다.

이러한 제도들은 각기 관리부서가 달라서 통합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통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위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춘천시에서 하는 여러 사업 중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하고 대세적인 고객 니즈(needs)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는 다시 시민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어용일, 제안제도 활성화 핵심 노하우 48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은  
주민자치회나 참여예산제도와 같이  
다른 틀로도 가능하지만, 누구나 시기를 가리지 않고  
시정 제안을 할 수 있는 점에서는 제안제도가 편리하다





우리동네 봄 산책길 | 백재우[춘천시]

# 6



## 제안자와 제안검토자가 알아야 할 제안운영 메뉴얼

### 제안제도의 개요

#### ■ 제안제도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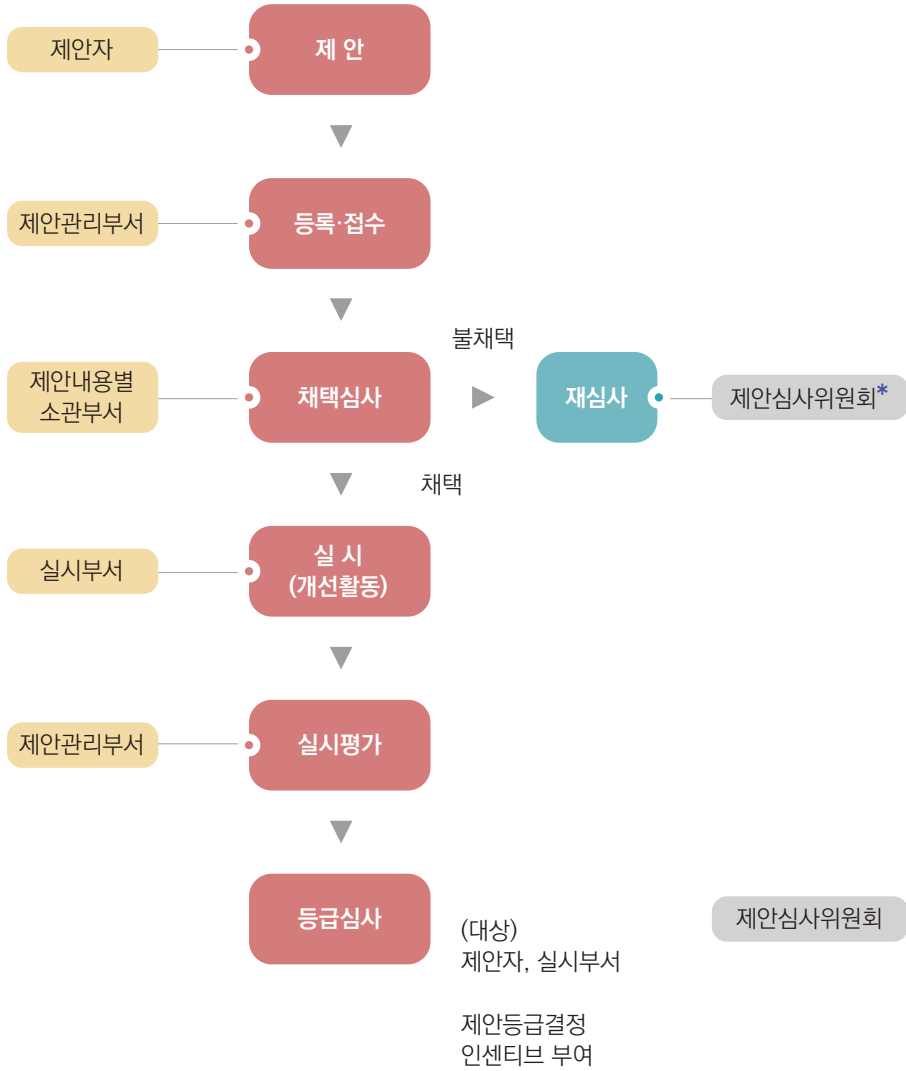
제안제도는 국민 또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경제화를 촉진하고, 행정 혁신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제안자나 실시 부서에 포상을 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다수의 제안을 한다던가,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제안을 한다는 등 개인적 성향이 불채택 사유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 국민제안규정 제1조, 공무원 제안규정 제1조, 춘천시 제안운영 조례 제1조



## 제안업무 흐름도



\* 춘천시시민주권위원회에서 대행·규정에는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춘천시는 모든 불채택 제안을 재심사하여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음.

## 제안제도 운영요령

### ■ 제안의 범위

제안의 범위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 전반에 걸쳐 있으며, 제도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발명과 같이 공사나 시설과 같은 자연 과학적 기술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제안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의 것들은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제안에 해당하는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추천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추천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추천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제안의 종류

#### ● 국민제안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 ● 아이디어 제안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국민제안규정 제2조 1호, 추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 제1호

● 실시 제안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제출하는 제안.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하여 개선이 완료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제안을 말하며, 상사의 지시나 기관의 개선 지침에 따른 것은 해당하지 않음

● 공모제안

공모 제안이란 추천사가 과제를 정하여 공개하고 그 공개된 과제에 대하여 제출받은 제안을 말함

■ 제안의 제출

● 제출수단

제안의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국민신문고(온라인 국민참여포탈)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대부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되나 인터넷 접근성이 부족한 제안자가 수기 작성하여 방문하는 경우에도 차별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 공동제안

2인 이상이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각 참여자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여도가 큰 사람을 “주제안자”,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같은 경우 참여자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 ■ 제안의 접수

### ● 신속접수 및 보완 요구

제안은 신속히 접수하되, 제안의 내용에 흠이 있거나 비제안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보완 기간 중 보완하지 않을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단순 건의, 진정 등의 민원인 경우 민원으로 전환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다.

### ● 반복 제안의 종결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까지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이후 접수 제안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 타 기관 이송

제안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 업무인 경우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소관부서(처리부서) 지정

관리부서(시민주권담당관)가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제안내용과 검토기한을 정하여 통보한다. 제안 내용이 여러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다중부서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 받은 부서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부서간 핑퐁으로 제안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나열된 사항 : 법에 따른 인가·허가 등,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질의민원), 건의민원, 상담·특정행위 요구 등

## ■ 제안의 심사

처리부서는 담당자 중심으로 관리부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검토하여 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부서로 통보한다. 이때 담당자는 제안 내용 일부 보완 또는 적극적 해석을 통해 제안 채택 가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은 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국장 전결은 부서내에서 소극적으로 심사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춘천시가 채택한 제도이다.

국민제안규정 제8조 제1항은 제안심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제안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제안검토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전국적으로 공개되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조리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 ◎ 제안심사의 기준 설명

심사기준	착안 사항	불채택 사유(예시)
실시 가능성	· 실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실시시 부작용이 큰 경우인지 여부	실시 가능성이 희박 실시시 부작용 큼
창의성	· 독창적이고 새로운지 여부 · 타 사례를 일부 모방하였거나, 전부 모방하였는지 여부	기존 춘천시 접수 제안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효율성 및 효과성	· 비용 대비 효과 · 예산절감, 세입증대효과 · 인력, 시간, 비용 절감 ·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	효과에 비해 과도한 예산· 인력 소요, 수단과 행정목적 달성 개연성 부족
적용범위	·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의 크기	수혜대상이 극히 일부이거나 없는 경우
계속성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가능한지 여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여부	극히 짧은 시간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제안인 경우

\* 원칙적으로 접수 기관 기준으로 동일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타 기관에 접수된 제안을 동일하게 제출한 경우에도 채택여부에 고려할 수 있으나, 포상시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 ■ 불채택 제안의 재검토

불채택 제안은 춘천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불채택 사유가 부족한 경우 처리부서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재검토 요구를 받은 제안은 부서에서 다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춘천시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에서 재검토 한 사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 불채택 제안의 통보 및 종결

불채택 제안은 제안자에게 최종결과 및 사유를 통보하고 종결한다.

## ■ 채택 제안의 실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택 제안은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자에게도 채택여부를 통지할 때 실시예정 시기를 알려야 한다.\* 이후 예정된 시기에 실시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제안자에게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 ■ 시상 및 보상

### ● 공무원이 아닌 제안자에 대한 포상

채택된 제안 중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채택·실시부서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 실시 담당자 개인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가시 가점을 줄 수도 있다.

각 포상의 등급과 내용은 춘천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통하여 정한다. 다만, 일단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우수등급을 정하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을 두는 것은 앞서 언급한 제안절차 간소화 필요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 대체로 부서의 최종 의견이 유지되지만 극히 일부는 제안의 실현가능성 및 효용성을 따져 부서의 의견과는 다르게 위원회에서 채택되기도 한다.

\* 국민제안규정 제11조 제1항

\* 국민제안규정 제11조 제2항

### 우수제안 심사를 위한 배점 기준표\*

심사 항목	검토 사항	배 점
합 계		100점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창적인가?</li> <li>다른 사례를 모방하였는가?</li> </ul>	20점
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li> <li>- 완성도, 자료의 수집 노력이나 정확성, 연구의 정도 등</li> </ul>	15점
경제성 능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li> <li>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li> <li>행정목적에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겠는가?</li> </ul>	30점
실시가능성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의 실시가 바로 가능한가?</li> <li>- 법령 개정, 예산확보문제, 민원문제 발생 등을 고려</li> <li>제안을 지속적으로 실시 가능한가?</li> <li>제안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li> </ul>	20점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부서 또는 읍·면·동에 적용할 수 있는가?</li> <li>일부 부서 또는 동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li> <li>실시 횟수나 수혜대상자가 많은가?</li> </ul>	15점

### 점수별 시상 등급\*

점 수	등 급
96점 이상	금 상
86 ~ 95점	은 상
76 ~ 85점	동 상
60 ~ 75점	장려상 또는 노력상
60점 미만	등급 미부여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2

● 공무원 및 시행부서에 대한 포상과 보상

우수제안 제출 공무원

- 시상 등급별 포상금은 국민이 제안자인 경우와 동일
- 인사 특전 반영: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

등급	인사 특전
금상	특별승급(1호봉 승급)
은상, 동상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 창안상여금\*

공무원의 제안으로 춘천시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에 창안자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이 아이디어, 발명·특허 등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는 춘천시가 승계하여 소유 한다.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 500만원 미만

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

등급	노력상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
점수	0.1	0.2	0.3	0.4	0.5

- 상시학습 인정

등급	제안채택	노력상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
상시학습 인정시간	5시간	10시간	15시간	20시간	25시간	30시간

- 각 부서 공무국외여행 시 우선 선발

**제안 시행 공무원 및 부서**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 \*담당자 한정

- 가점: 0.6점 부여(월0.05점)
- 기간: 기본·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초기 정착 1년 간\*

\* 인사발령 등에 따른 시행 공무원 변경 가능으로 초기 정착 기간(1년) 내 월 단위 가점 부여

- (시행부서) 우수제안 실시 평가에 따른 포상 및 부상금 지급

- 평가대상 기간: 2020. 11. 1. ~ 2021. 10. 31.
- 포상규모: 최우수1(100만원), 우수1(50만원), 장려2(30만원)
- 선정방법: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부여

**■ 채택 제안의 사후 관리**

● 관리기간 설정 및 확인·점검

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도 2년간은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채택 제안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실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시를 보류할 수도 있다.\*

불채택 제안도 관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후 여건 변경에 따라서 유용한 제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7조2항

### ● 실시성과 측정

채택 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및 세수증대 등의 성과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기준에 따라 우수·수·미·양·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 개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성과 측정은 실시 후 최초의 성과가 나타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 제안 정보의 공동활용

#### ● 타기관 제안 접수내용 공유\*

국민제안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통상 시상 심사단계에서 타 기관에 중복수상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하여 확인한다.

#### ● 우수 제안의 타기관 적용 권유\*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 기관이 제안을 채택한 동일한 제안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제안 내용이 좋은 것이라면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중복하여 시상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 특정 제안이 세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측정방법 예시 : 세수증대액 = 제안 실시 후 세수총액 - (기존의 세수총액 + 제안 실시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요된 비용)

\* 국민제안규정 제23조 제4항

\* 국민제안규정 제26조

\* 국민제안규정 제27조



## 제안제도를 살리는 제안검토 노하우

- 검토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공개된다.

친절하고 성의 있게 작성되고 불채택시 그 이유가 조리 있게 설명되어야 한다. 의미가 명확하게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채택을 전제로 검토하면 제안제도의 성과로 이어진다.

가급적 모든 제안은 채택을 전제로 긍정적 자세에서 검토하고, 치명적문제점이 있는 경우 불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단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채택 제안은 3년 이내에 실시하면 되고, 불가피한 경우 시행을 보류하거나 수정하여 실시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기초적 아이디어가 우수하다면 과감하게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필요하면 제안자를 인터뷰 하라

제안 내용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제안자에게 연락하여 그 취지에 대해 묻고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불채택된 제안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한 줄의 아이디어가 아쉬운 경우가 있다.

상황과 시기가 바뀌면, 불채택했던 제안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이 검토했던 제안을 기억해 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제안자가 알아야 할 제안 노하우

-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은 구체적일 것

완벽할 필요는 없으나 지나치게 모호한 제안은 심사하기 어렵거나 불채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필요하다면 도면이나 그림을 첨부하면 더욱 좋다.

-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

춘천시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 춘천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시의 각종정보는 홈페이지, 공식 SNS, 유튜브, 언론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넓게 정보를 안다면 그 다음에는 특정분야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그러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시의 적절한 과제이면 더욱 좋다

춘천시가 핵심적 목표로 추구하는 시정목표와 관련된 과제를 제안해 주면 그 제안은 더 주목 받을 수 있다.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안을 준다면 금상첨화이기 때문이다.

- 너무 넓은 주제보다 디테일한 주제가 좋다

춘천시나 다른 기관이 채택한 제안을 보면 디테일한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여러개를 하나로 묶거나 너무 원대한 제안을 하면 장기과제로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시행하기에 부적합하여 채택할 수 없다.

- 예산이 적게 들거나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은 좋은 제안이다

제안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행정효율성 강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율성이란 같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성과를 얻거나, 적은 비용으로 같은 성과를 얻는 것 등을 말한다. 업무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효율성을 달성한 것이다.

- 시행의 용이성을 감안하라

제안제도를 운영하다보면 채택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검토부서의 수용력이 높다. 이는 예산을 수립한다던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하는 추진과정상의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 기발한 아이디어이면 좋지만, 상식적 관점에서 제안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모두를 탄복하게 하는 제안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춘천시의 행정이나 시행되는 제도를 잘 살피다 보면 시민의 관점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상의 시민의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 민원과 제안은 한 곳 차이이지만,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중요한 구분 기준은 수혜자가 누구인지이다.

제안자와 관련된 제안은 민원이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도로를 넓혀달라는 것은 민원이다. 내가 개발한 제품을 공공구매해달라는 것도 제안이 아니다. 제안은 수혜자가 전체 시민, 특정 연령이나 계층 등과 같이 광범위에 걸쳐 있어야 한다.

민원이라면 민원으로 접수하는 것이 신청자에게 유리하다. 제안심사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이지만, 민원은 법에 따라 엄격한 판단하에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안을 제출하는데 필요 서류 혹은 자격이 있습니까?**



특별한 자격은 없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제안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해진 서식으로 제출하거나 국민 제안 시스템 국민제안 메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안은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원과 제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인가나 허가, 승인, 면허 등을 원하여 신청하는 것과 어떤 사안을 질의하거나, 특정한 내용을 건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안은 행정기관에 시책이나 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획일적이진 않지만 민원과 차별적인 제안의 특징 중 하나는 제안인에게 자기에게 특정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채택해 볼 것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제안의 불채택은 행정소송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제안의 경우 내 업무와 관련된 제안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며, 지속적인 업무를 통해 발굴되는 아이디어는 대체로 우수한 경우가 많아서 권장되고 있습니다. 자기업무 관련 제안은 대체로 실시제안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실시제안은 자기 업무에 적용해보고 성과가 좋아 다른 담당자에게도 실시해볼 것을 제안하는 것 입니다.



### 제안 접수 후 답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제안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합니다. 전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매월 1일 담당부서 배정(접수) 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개최(매월 22일 개최)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매월 30일(말일)까지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심사가 지연되거나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다소 기간 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별로 구성·운영합니다. 국민제안규정 제8조 제3항은 위원회 구성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 공무원의 시각이 제안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춘천시의 경우 전원을 시민\*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시민으로 구성된 춘천시시민주권위원회가 춘천시제안심사위원회 역할 대행





제안제도는

국민 또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고,  
행정 혁신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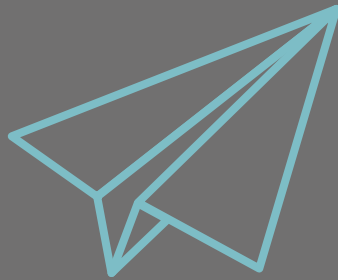
춘천의 구름다리 야경 | 김아윤[춘천시]



제안우수사례

#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실시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안이 이루어지고, 춘천시 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제안 내용은 제안자가 생활에서 느낀 불편함이 주요한 소재이고,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다른기관에서 채택한 제안도 함께 소개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제안이 이루어지고,  
춘천시 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제안 내용은 제안자가 생활에서 느낀 불편함이 주요한 소재이고,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다른기관에서 채택한 제안도 함께 소개합니다.

# 1



## 춘천시의 제안채택 및 시행사례

### 장난감 병원(수리센터) 운영(2020년)

#### 어떤 제안인가\*

##### 현황과 문제점

한해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장난감 폐기물은 무려 240만 톤이 넘고, 재활용률은 0%이고 매립 소각처리하여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합니다. 다른 지역은 장난감을 수리해주는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춘천에는 없습니다.

##### 개선 방안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춘천시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 병원을 운영하여 아이들 장난감을 고쳐주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원래의 제안서를 요지 중심으로 요약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이하 사례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따름)



기대  
효과

- 장난감 수리센터가 있다는 것만 홍보하여도 버려지는 장난감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이들이 더는 가지고놀지 않는 장난감을 기증 받아 수리 및 세척하여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장난감을 다시 고쳐 쓰으로써 또다른 장난감을 사줘야 하는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리할 수 없는 장난감은 분해하여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창의력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 ■ 춘천시가 채택한 이유는

제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수혜대상이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에 미칠뿐만 아니라 그 기대효과도 자원 재활용\*, 가계지출 절감, 소외계층 지원, 창의력 개발 등 다양하다.

또한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원하는 시기에 제출된 제안이어서 춘천시가 시행하기에 매우 적시성이 있는 제안이었다.

### ■ 제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나

춘천시(보육아동과)는 영유아(0 ~ 만5세)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장난감 병원을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에 약59.5㎡의 공간에 설치하였다. 연간 약 3,500만원의 예산으로 수리기사 전담인력 1명을 채용하였으며, 2021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이다.

수리비는 전부 무상이지만 부품구입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품구입비는 수리를 의뢰한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 장난감 재료는 대체로 색이 있는 플라스틱이어서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움

## 주민등록증 교부방식 개선

### 어떤 제안인가

#### 현황과 문제점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르면 17세 이상이 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데 발급받는 본인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생에 처음으로 발급받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주민등록증은 동주민센터 금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찾으러 오면 본인 확인 후 교부하고 있으며 교부시 별다른 안내도 없기 때문에 발급자는 별다른 감동이 없을 수 있다.

#### 개선 방안

조그만한 예쁜 꽃다발 같은 모양이 있는 작은 봉투에 최초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축하카드와 함께 동봉하여 전달하고, 앞으로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각종 안내 전화번호도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의 대표 SNS주소(facebook, twitter 등)도 기재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이제 시민의 일원이 되었으니 시정에도 참여해달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 기대 효과

- 시민 및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해주며 자부심과 주인의식 고취할 수 있습니다.
- 춘천에 대한 애郷심을 키우고 시정참여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작은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정과 시민이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 ■ 춘천시가 채택한 이유는

창의력이 돋보이는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1년에 3백만원 정도면 시행이 가능한 제안이었습니다. 제안은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고객인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예산과 노력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 ■ 제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나

춘천시(민원담당관)는 2019년 6월부터 이 제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제도 시행전 일정한 홍보를 하고, 선거법상 가능한지도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검토하는 등 준비하였다.

대상자는 만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시민이고, 연간 약 2,000명이내이다. 카드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카드 겉장



카드 속지

# 제증명수수료 영수증 폐지 및 종이인쇄물 최소화 제안(2021)

## ■ 어떤 제안인가

### 현황과 문제점

며칠 전에 등기우편(2건)을 보내려고 우체국에 가서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니 우체국 담당자님이 “영수증을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아 “네”라고 하니 종이영수증을 미발급하고 카톡으로 등기우편 요금 영수증을 보내왔습니다 종이영수증 미발행으로 자원낭비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휴대폰에 결제 기록이 남으니 언제든 결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각종 종이 책자 발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시청 및 보건소 민원실에서 제증명수수료 결제 시 가능한 종이영수증을 미 발급하고 가능하면 카톡 등으로 결제 내역을 발급하도록 업무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휴대폰 미소지자는 기존방법대로 종이영수증을 발급하고, 휴대폰 카톡 등의 결제 내역 등을 시용하려면 사전에 카톡 사용에 따른 업무 협의를 함

시청 및 보건소 민원실 내에서 우선적으로 종이영수증 발행 대신 카톡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사용(3~6개월)한 후 미비점과 개선할 점을 완전히 개선한 후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업무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각 부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부서에서(예를 들면 춘천시 예산서, 어린이용 홍보, 안전관리계획, 풍수해 대책, 제설대책, ○○사례집, 보건 분야 등) 가능하면 책자 발행 부수를 극히 최소로 발행(법적으로 부득이 발행해야 하는 부수)하고 앞으로는 홈페이지 내에 책자코너를 구축하여 책자 발행 내용을 게재하도록 조치하여 직원 및 시민들이 아무 때나 책자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원 및 예산낭비 방지, 결재내역 및 책의 정보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 주민편의 향상, 업무 효율화

#### ■ 제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나

본 제안은 2021년 9월 접수된 제안으로 현재까지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제안내용의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고 행정효율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홈페이지 개편, 수납시스템 개편을 통해 제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내 아이가정을 위한 통합정보 콘텐츠 구축(2021년)

## ■ 어떤 제안인가

### 현황과 문제점

아이를 키우는 가정 중 지역 내 모유수유실이나 유모차 대여(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운영), 유모차 살균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있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유용한 프로그램이 어디서 운영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아이가정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유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가정이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 개선 방안

춘천시 홈페이지에 아이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합안내 페이지 구축을 제안합니다.

모유수유실, 유모차 대여, 유모차 살균기, 장난감도서관 등 위치 및 운영시간, 유관기관 홈페이지 링크, 유용한 프로그램 안내 등 각종 정보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기대 효과

그 동안 아이를 키우는 데 몰랐던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접할 수 있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제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나

2021년 10월에 제출된 제안으로 아직 시행단계에 있지는 않지만, 춘천시(보육아동과)는 제안취지에 깊은 공감을 갖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제안내용과 같은 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2019년)

## ■ 어떤 제안인가

### 현황과 문제점

횡단보도를 건너려 급하게 뛰어가다가 안보이던 차가 갑자기 나와 어린이 이 등을 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 개선 방안

춘천시에 길가를 횡단하려는 사람이나 차량에게 신호나 경고를 줄 수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마트 신호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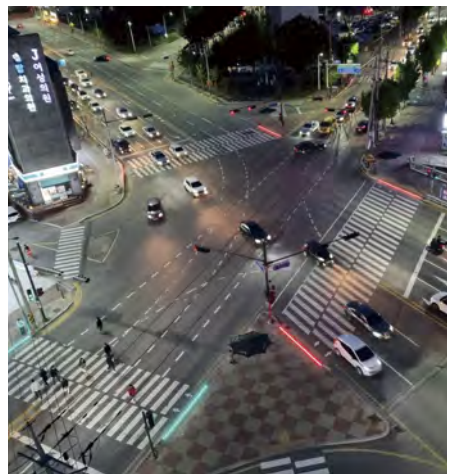
## ■ 춘천시가 채택한 이유는

수혜자가 전체 시민으로 비교적 넓으며, 스마트 횡단보도 기술이나 디자인이 발전해 있으며,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였다.

## ■ 제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나

춘천시(대중교통과)는 2019년부터 순차로 적용하여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다. 2021년까지 설치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중앙로터리 횡단보도 2곳(2019년), 남춘천초등학교 후문, 남부초등학교 정문, 그린아파트 정문 횡단보도 등 3곳(2020년), 거두사거리, 도화골 사거리, 투탑시티사거리(2021년), 향후 지역 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 예정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진(거두사거리)

# 시립도서관 모바일 홈페이지 메뉴에 ‘나의서재’신설(2020년)

## ■ 어떤 제안인가

### 현황과 문제점

춘천시립공공도서관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도서를 검색하면 도서의 기본정보(저자, 출판사 등), 소장도서관 및 도서위치 등의 안내가 나오고 그 아래에 ‘①예약불가, ②대출가능/대출중, ③스마트도서관 비치 신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를 검색했을 경우 소장 도서관 및 서고위치를 따로 메모하거나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서 보관을 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 별도로 작성했던 메모나 휴대전화 캡처화면을 보고 도서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검색한 도서가 대출중이라면, 도서를 매번 다시 검색을 해서 도서대출가능여부를 체크해야합니다.

### 개선 방안

나의서재(가칭) 메뉴를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도서를 검색하고 서재에 담으면, ‘나의서재’에서도 해당 도서의 대출가능여부, 스마트도서관 비치 신청, 도서의 서고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기대 효과

평소 관심 있는 도서의 대출 가능여부를 손쉽게 체크할 수 있으며, 도서관 방문 시에도 다시 도서를 검색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도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 효과 및 독서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 ■ 춘천시가 채택한 이유는

제안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고, 수혜대상이 전체 시민이어  
서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고 보았다.

## ■ 제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나

춘천시(시립도서관)은 기존의 스마트도서관에 소장도서 정보를 모바일 이용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나의 서재’기능을 2021년 8월 구축하였다.

나의 서재에서는 검색한 책의 대출가능여부, 보관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Chuncheon City Library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library logo and various service links. Below this is a banner image with the text '나의공간' (My Space) and '나의 서재' (My Bookshelf).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내 서재' (My Bookshelf) and features a search bar with dropdown menus for '도서관 선택' (Library Selection) and '검색조건 상태' (Search Condition Status). Below the search bar, there is a section for '내 서재 정보' (My Bookshelf Information) which displays a book titled '베트남 쌀남 떡 이야기' (Vietnam Rice Nam Tteok Story) with its author, publisher, and status.

춘천시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

# 홈페이지 내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을 구축(2021)

## ■ 어떤 제안인가

### 현황과 문제점

전동휠체어의 전력이 소진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설치된 곳을 찾지만 대부분 건물 내에 있어서 불편합니다.

### 개선 방안

- 춘천시에서 근린공원 중에서 규모가 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등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24시간 충전이 가능한 곳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에서 충전기 설치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 또한 시청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안전 코너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옥외, 옥내)을 구축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마음 편하게 전동휠체어 충전기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여 이용토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 충전기 설치를 옥외 및 옥내로 표시하고 이용시간 표시
- 춘천시에서 가능하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시 전동휠체어 바퀴에 공기 주입도 할 수 있도록 충전기에 내장된 것을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개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춘천시에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전동휠체어 충전기 이용
- 춘천시에서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
- 춘천시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우들에게 이동권 보장
- 춘천시의 전동휠체어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춘천시의 전동휠체어 자원의 효율적 관리

### ■ 춘천시가 채택한 이유는

제안은 우리시 전동휠체어 충전소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아이디어입니다. 즉시 실시해도 될 만큼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실시 적합성이 우수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예산도 필요 없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수혜자들에게 즉시 효과를 줄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 ■ 제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나

춘천시는 2021년 홈페이지에 전동휠체어 충전소 설치현황 정보를 이용시간과 실내, 실외를 구분하여 탑재하였습니다. 몇 분의 장애우들에게 의견을 물어 본 결과 한눈에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어서 편리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연번	장소명	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실내/실외
1	춘천시청	춘천시 시청길 11	250-3325	24시간	실내
2	보건소	춘천시 중앙로 125	250-3550	24시간	실내
3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신북읍 물문길 75	245-5283	24시간	실내
4	동면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동면 가산로 49	245-5323	평일 9시~18시	실내
5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79	245-5430	평일 9시~18시	실내
6	사북면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721	245-5504	평일 9시~18시	실내
7	서면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서면 관산길 21	245-5484	평일 9시~18시	실내
8	후평동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후평로 83	245-5689	평일 9시~18시	실내
9	표지암동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표지암로 10	245-5732	평일 9시~18시	실내
10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두리길 21	245-5750	평일 9시~18시	실내
11	역사동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회계로 289	245-5779	평일 9시~18시	실내
12	회계동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회계로 46	245-5810	평일 9시~18시	실내
13	이대포리(이전정기)법관	춘천시 이대포리길 1	240-1649	9시~18시(코로나휴무)	실내
14	순천시립도서관	춘천시 유서로 100	245-5111	평일 9시~18시	실내
15	갈매안노조센터	춘천시 평화로 26	240-1752	9시~18시(월요일휴무)	실내

홈페이지에 전동휠체어 충전소 설치 탑재

# 전봇대 이설비용 부가가치세 환수를 통한 시 재정수입 증대(2019)

## ■ 어떤 제안인가

### 현황과 문제점

부가가치세는 거래(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관계인 경우에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에 한국전력이 공익사업시 전봇대(지장전주, 통신주) 이설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해 왔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자가 전봇대 이설비용을 주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손해\*를 입는 자(한국전력)에게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개선 방안

부가가치세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여, 과거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한국전력에 반환청구하고, 향후 공익사업시에는 납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기대 효과

재정수입(반환금)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부가가치세 미지급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제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나

현재 한국전력과 환급을 협상 중에 있으며 수백만 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여기서 손해는 전봇대를 옮겨야 하는 비용
- \* 이 같은 법리는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되었음

## 치매환자에게 성인용 팬티형기저귀로 지급해주세요(2018)

### ■ 어떤 제안인가

#### 현황과 문제점

현재 춘천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치매지원물품중 성인용 기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성인용 기저귀로 지원함에 각 가정마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해주는 기저귀는 스티커를 떼서 붙이는 방식이라 아기용 기저귀라는 생각에 치매 어르신들이지만 무척 마음 상해하십니다. 치매이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이라 성인용 기저귀를 일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 물품을 지원받는 것이라고 느껴져 현실에 맞는 기저귀 지급을 제안합니다.

#### 개선 방안

성인용 팬티형 기저귀를 사용하면 일반 속옷을 입듯이 자연스럽게 착용합니다. 새로운 속옷이라고 인식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치매 5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자존감을 지켜 드릴 수 있는 성인용 팬티 기저귀를 지급해 주십시오. (물론 중증치매이면 일반형이 맞지만 치매 5등급시에 지원해주는 물품은 꼭 성인용 팬티 기저귀가 필요합니다.)

#### 기대 효과

성인용 팬티 기저귀 지급은 행복한 돌봄으로 이어져 모든 치매어르신들이 이쁜 치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며 벌어지는 마음 불편한 가족의 어려움과 치매어르신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니 돌보는 이의 정신건강과 치매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과 위생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 ■ 춘천시가 채택한 이유는

치매환자나 치매환자의 가족이 아니면 간과하기 쉬운 환자의 감성적 수용력이 제안의 동기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이 제안은 생활밀착도가 높습니다.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바로 적용이 가능한 제안이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지만, 추가예산대비 기대효과가 높아 훌륭한 제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제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나

춘천시(방문보건과)는 2020년부터 제안한 내용대로 팬티형 성인기저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혜자는 약 900여 명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1억 원 정도이지만, 지급 받은 치매환자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현재 환자 1명당 월32개 정도의 팬티형 기저귀를 지급하고 있으며, 중증으로 진행되신 분은 기존의 스티커방식의 기저귀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각종 축제 홈페이지에 이동식 장애인화장실 유무 및 위치 표기(2016)

### ■ 어떤 제안인가

#### 현황과 문제점

각종 축제홈페이지에 장애인이동식 화장실 유무 및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개선 방안

각종 축제홈페이지에 이동식 장애인화장실 유무 및 위치표기를 하여 장애인이 사전에 알수 있도록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 기대 효과

시정 이미지 개선 및 장애인의 만족도 향상

### ■ 제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나

춘천시는 제안자의 제안이 장애인의 축제 참가 욕구를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종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제안한 창의성 높은 제안이라고 보아 채택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관광지 휴무일을 외국인이 알 수 있게 외국어홈페이지에 안내(2016)

### ■ 어떤 제안인가

#### 현황과 문제점

외국인들이 관광명소를 관람하시기 위해 관광지 방문시 지자체 영문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방문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방문하고자하는 곳의 휴무일이 언제인지를 잘 모르고 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 개선 방안

춘천시 영문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접속 할 경우 관광 명소 휴무일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 기대 효과

- 외국인 방문객들이 관광명소 관람 계획을 세우시기가 매우 편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국인 관광 방문객들이 휴무일을 모르고 방문하여 관람도 못하고 다시 발길을 돌려야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

### ■ 제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나

춘천시는 제안자의 제안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영문관광포털 게시판 주요 관광지 목록에 휴무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건축현장의 건축허가 표지판에 허가부서 연락처 표시제안(2017)

### ■ 어떤 제안인가

#### 현황과 문제점

건축허가 표지판에 민원기관 관련 연락처를 표시하여 민원인들이 쉽고 빠르게 연락을 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들의 편의 및 불편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표지판은 건축법 제24조 5항 시행규칙 18조에 의무로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할때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민원을 어디에다 접수를 해야하는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합니다.

#### 개선 방안

건축허가 표지판에 민원기관 연락처를 기재하면 어떨까요?

연락처만 기재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도 들지 않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건축허가 표지판에 민원기관 연락처만 기재하면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민원기관과 연락할 수 있어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민원인들의 불편 및 편의제공, 공사정보에 대한 알권리 및 정보제공 효과

### ■ 제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나

춘천시는 제안내용이 현장에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시민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사협회에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시 민원기관(건축허가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토록 협조 요청”하여 개선하였습니다.

#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해 공중화장실 안내(2017)

## ■ 어떤 제안인가

### 현황과 문제점

공원, 관광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다보면 주위의 공중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공중화장실 안내판(이정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현재 안내하는 공중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있는 지, 유아변기가 있는 지를 알 수가 없어 들어간 뒤, 없다면 다시 나와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개선 방안

아기를 동반한 가족들이 공원, 관광지, 공공시설 공중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안내하는 표지판에 기저귀교환대, 유아변기가 존재함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관련 픽토그램으로 표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 산책로나 트레킹코스, 버스정류장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 안내도(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픽토그램은 내외국인 모두가 쉽게 알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 기대 효과

아이를 동반하는 가족들이 인근 공중화장실 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어 이용에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제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나

춘천시는 제안 내용이 아이 동반 가족에게 편의를 줄 수 있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채택하고, 2018년까지 춘천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이륜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맞춤형안내 실시(2017)

## ■ 어떤 제안인가

### 현황과 문제점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차량소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를 보유한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유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상속인이 소유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업무공무원과 상속인과의 마찰이나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선 방안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이륜차 등록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시스템에 사망신고가 되면 이륜차 소유 여부를 파악하고, 상속인에게 소유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안내문으로 발송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 기대 효과

상속인들이 알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주민편의 효과가 높일 수 있습니다.

## ■ 제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나

춘천시는 제안 내용과 같이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에 이미 이륜자동차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 사망자 조회시스템을 바탕으로 사망시 그 상속인에게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 비교적 재산가치가 적고, 관련법을 잘 몰라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판단됨



다양한 제안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은  
자기 아이디어를 객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머리 속에 머문 생각을 눈에 보이듯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안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인 수단이 담긴 제안이라면  
환영받는 제안이 될 수 있다.





| 짠녹황자우[베트남 달랏시]

# 2



## 다른 기관의 제안채택 및 시행 사례\*

### 전학제도 개선 제안(2021년, 서울시교육청)

#### 현황과 문제점

전학 신청을 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하는데,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오후에 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배정 받은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그 다음날 오전에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아 매우 불편합니다.

#### 개선 방안

배정처리를 좀 더 일찍하여 학부모가 당일날 전학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기대 효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학을 위해 하루 휴가를 내서 당일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시행 결과

서울시 교육청은 기존 오후 5시 1회 배정 방식에서 오전 접수분은 오후 1시, 오후 접수분은 오후 5시로 2회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행.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게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 플라스틱 등 재활용물 제고를 위한 분리수거 기계 설치(2021년, 서울 서초구)

### 현황과 문제점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활용율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반환보증금 판트제도가 있어 재활용품 선별 기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 개선 방안

재활용품을 넣으면 보증금을 적립해주는 공병기계를 도입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련 기계를 운영하는 회사는 수퍼빈의 네프론, 한화솔루션의 페트병 수거함 등이 있습니다.

### 기대 효과

일회용품 재활용율 향상 및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실시 결과

서울시 서초구는 제안내용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 장소, 설치 수량 등 시범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이며, 시민들에게 홍보를 병행하고 있음.



## 지역 중소기업 정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링크(2021년, 김포시)

### 현황 및 문제점

관내 중소기업은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한데 기관 홈페이지에 링크연계가 되지 않아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개선 방안

김포시 홈페이지에 김포상공회의소 배너를 넣어 홈페이지로 넘어 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 기대 효과

시와 중소기업간 연계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

### 실시 결과

김포시는 2021년 시 홈페이지에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연계 완료.



## 주차장 재배치를 통한 주차대수 추가확보(2020년, 전남광양)

### 현황 및 문제점

광양읍 소재 주차장은 유사한 다른 주차장 면적에 비해 주차면수가 적은 실정입니다.

### 개선 방안

기존주차장 진출입구를 변경하고, 주차면을 재배치할 경우 기존 50면이던 주차장을 72면으로 최대 22면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대 효과

적은 추가 소요예산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해 시민편익 증대.

### 실시 결과

광양시는 제안자의 제안을 참고하여 주차장 정비를 하여 완료하였음.

\* 제안자는 배치도면도 함께 첨부하여 제안하였음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잘못 표기된 용어 수정 제안(2020년, 행안부)

### 현황 및 문제점

방사선은 방사성 물질의 붕괴에 따라 방출되는 입자를 뜻하며, 방사능은 방사선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방사성은 방사능을 가진 성질입니다. 방폐물은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을 의미하므로 '방사성 폐기물'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안부 국가기록원 사이트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이 방사선 폐기물로 오표기되어 있습니다.

### 개선 방안

아래 링크에서 '방사선 폐기물'로 오표기된 용어를 '방사성 폐기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기대 효과

해당 자료는 공공에게 공개된 자료로 누구나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통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실시 결과

국가기록원은 제안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표기된 내용을 방사성 폐기물로 수정하였음.

## 기간만료 여권 반납 및 폐기 제안(2020년, 서울시 동대문구)

### 현황 및 문제점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분증으로 사용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에는 사진과(영문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코팅처리되어 있어 집에서 폐기하거나 함부로 버리기 어려운데 구청에서 여권재발급시 구멍만 뚫어 다시 돌려주어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여권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 사용시 혼동할 수 있고 이사 등으로 분실하거나 장기 미사용하여 보관 위치를 기억하지 못할경우 불안할 수 있습니다.

### 개선 방안

여권 재발급 또는 본인 희망시 사용할 수 없는 여권을 구청에서 접수받아 폐기처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기대 효과

신분증(여권)에 있는 개인정보 유출우려 해소  
가장 최근에 만든 여권을 사용할수 있어 혼동이나 보관위치 기억 불편해소 및 편리성 증대

### 실시 결과

동대문구는 제안을 받아들여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시행.



# 온라인 여권발급 시스템 구축(2019년, 외교부)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여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한데, 그 이유는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으로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 개선 방안

여권발급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하고 신원확인은 공인인증서, 아이폰, 휴대전화 등 “신문고 로그인”처럼 시행하고, 여권을 찾을 때 반드시 확인 검증을 위하여 현재의 지문 인식 시스템 시행 (더 나은 기술이 있다면 외교부에서 적의 시행)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기대 효과

1. 여권발급 때문에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2. 4차 산업 정보화 시대에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여권운영 정책에 만족도 up
3. 여권발급을 위한 관공서 래방에 따른 국민들의 기회비용( 휴가, 결근, 조퇴 아이돌봄 등) 절감

## 실시 결과

외교부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음.

##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휴대폰/테블릿으로 가능하도록 개선(2019년, 국세청)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상대방의 동의하에 주민번호로 사업자 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대폰이나 테블릿에서는 그 조회가 안되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휴대폰/테블릿 pc에서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조회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 기대 효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5G 통신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간편한 업무 시스템으로 국민편익 향상.

### 실시 결과

국세청은 2020년 시스템을 개선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 전자공문서 형식 간략화를 통한 자원절약(2006년, 행정안전부)

### 현황 및 문제점

온라인을 통해 송수신되는 모든 EDI\* 문서는 사용자 필요에 따라 인쇄 출력되고 있습니다. 문서를 출력하다 보면 끝부분 자투리로 인해 페이지가 쓸데없이 추가되어 인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별 필요도 없는 내용이 아까운 종이 한 장과 그 비싼 잉크를 잡아 먹으면서 인쇄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들을 유심히 본 결과 쓸 데 없는 줄 바꾸기, 쓸 데 없이 큰 글자 크기, 쓸 데 없는 여백, 형식에 치우친 쓸 데 없는 문장 하나가 새 종이 한 장을 그냥 잡아 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개선 방안

우선 정부 차원에서 EDI 문서, 공문서 등의 “쓸 데 없는 형식, 내용 색출하기” 캠페인 등을 벌여 문서 상 1줄만 줄일 수 있어도 이로 인한 자원 절약 효과는 방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민간 기업 단체에 까지 확대된다면 정말 무시 못할 수준 일 것 같습니다.

### 실시 결과

행정능률 향상과 자원절약의 관점에서 좋은 의견이며, 제안자의 취지를 받아들여 고유가 시대에 자원절약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무원 등에게 주의를 촉구하겠음. 업무편람 발간시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교육·홍보조치 하였음.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 문서교환)

## 비닐하우스 폭설 파손 방지책 제안(2006년, 농림축산식품부)

---

### 현황 및 문제점

폭설시 그 무게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 개선 방안

비닐하우스 천정에서 땅까지 일자형 지주를 일정 간격으로 세운다면 무게를 버틸 수가 있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시 지도하거나 홍보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 기대 효과

폭설시 비닐하우스를 안전하게 유지 할 수 있음.

### 실시 결과

농림부는 비닐하우스내 지주대를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07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지원.  
또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 고시(2007년),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내재해형 기준 고시에 제안내용 적용.

# 3



## 제안제도 밖의 시민참여 사례

모든 행정기관은 공식적 국민제안제도 외로도 별도의 국민 또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차이는 제안제도는 아이디어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이런 제도들은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한다든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춘천시에서 시행되는 사례를 몇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조직이다. 근거가 되는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 27조이고 설치 목적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확산 및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주민자치회는 매년 지역주민들이 모여 그 지역에 주민이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다음연도 추진 사업들을 선정한다. 주민총회는 해당 지역 거주민 전체로 구성된 의결기관이고 주민자치회는 집행조직에 준하여 운영된다. 주민총회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춘천시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주민자치회에 배정하고, 실제 그 사업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다.

국민제안제도에서 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이지만, 주민자치회 사업은 제안주체가 읍면동자치회라는 점이다. 또한 국민제안은 채택 후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최종 선정하기 전 춘천시 관련 부서에서 법률적 이유 등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를 검토하는 절차가 있지만, 주민자치회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마을총회가 선정하고 주민자치회가 직접 시행한다. 2021년 선정하여 2022년에 실시할 주민자치회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물론 2인 이상이 공동제안하는 방법도 있다.



〈2021년 주민자치회 선정 47개 사업〉

자치회	사업명	사업내용
신복읍 주민자치회	울문천 살리기	울문천 정화, 산책길 조성
	농업 부산물 처리	농업부산물 처리 홍보, 교육, 무상수거 및 퇴비화
	농약보관함 설치	농가별 안전한 농약병 관리함 설치
	생활폐기물 줄이기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재사용 빈도 증대
동산면 주민자치회	마을순회 영화상영	마을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여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상호소통 도모
	동산면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진촬영 및 액자 제공
	전인고 학생동아리 연계 프로그램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마을 벽화 그리기, 집 수리, 농촌 일손 돕기 등의 프로그램 진행
동내면 주민자치위원회	동내면 홍보책자 발간	동내면의 마을자원 찾기를 통해 자긍심 고취, 외지인에게 안내자료 제공, 지역 관광자원 활용
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우리마을 알리기 사업추진 확대	마을역사 이해교육, 마을 브랜드 조형물 및 마을기 제작 설치, 마을해설사 활동등을 통해 마을이미지 형성
북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서로 돌보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독거노인 대상 응급벨 설치, 위급상황 발생시 인근 거주 주민의 응급 대처
	찾아오고 싶은 북산면 꽃길 만들기	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지역 분위기 되살리기, 관광객 유치
소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옥천길 넓히기 (한 줄 주차하기)	골목 내 한줄 주차 시스템 구축, 인근 공터 주차장 주차안내로 안전한 골목길 실현
	소통하는 우리마을, 소양동 마을축제	분기별 마을축제 개최로 소양동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형성해 주민들 간 관계 형성
조운동 주민자치회	조운동 골목길 지도 만들기	길찾기 편의 제공, 골목길 환경개선
	제2호 수변공원 주민쉼터 조성	쉼터공간 제공, 녹지 공간 조성 및 주변 환경 개선, 상징성 부여
	조운동 어르신들의 조운날	어르신과 함께하는 축제 및 문화 교육 제공

자치회	사업명	사업내용
약사명동 주민자치회	약사마을에서 늦여름 보내기	약사천 수변공원에서 축제 개최
	다정다감 약사명동	어르신과 유아가 함께 전통놀이체험, 카네이션 만들기, 소금 만들기, 편지 읽어드리기 등 체험활동을 진행
후평1동 주민자치회	꽃길만 걷자 : 꽃길 조성	도로 미관 개선, 자생단체 이름으로 꽃길 조성 및 해당 단체에서 관리
	경로 쉼 의자 조성	언덕길 등 인도에 의자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 해소
	애국심 증진 : 태극기거리 집중화	주민들의 국민 의식 및 나라사랑에 대한 의식 고취
	대보름 맞이 지신밟기 행사	개인/상가/아파트 등 요청에 따라 마을 대표의 뒤뚜루 농악단이 지신밟기 행사를 진행
	계절이 기대되는 후평1동	자택별 나무심기 운동, 공기정화 효과 및 마을 미관 개선
	소양도서관 문화생활 참여 독려	소양도서관의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홍보하여 주민 문화수준 향상 도모
	일석삼조 바자회 개최	마을 복지 향상 및 이웃사랑 실천
	뒤뚜루 농악 공연 및 연습공간 (SOC 사업추진)	농악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후평2동 주민자치회	교육강좌 개설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설, 수강한 주민들 간 지속적인 모임 형성
	힐링장터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동체 모임 운영
후평3동 주민자치회	은하수 쉼터	인도에 벤치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보행 중에 쉴 수 있는 쉼터 제공
	웅기종기 뒤뚜루 꽃밭 확장	꽃밭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울타리를 설치하여 경관 개선
	아이와 어른이 행복한 쉼터	폭포공원을 이용하여 작은 음악회, 그림그리기 대회, 체험 프로그램 등 행사 추진

자치회	사업명	사업내용
효자1동 주민자치회	문화가 있는 우리동네 만들기	약사천 주변 산책로에 문화행사를 활성화하여 문화예술공간 마련
	다시 방문하고픈 우리동네	벽화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석사동 주민자치회	행복나눔장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민주도의 중고물품 나눔장터 마련
	석사천 어드벤처, 모여라 아고라로(2차)	가족단위 벽화 그리기를 통해 애동심 고취 및 석사천의 예술광장화
	석사동 주민자치센터 초등학생 프로그램 운영	아이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석사교 시민 상설공연장 무대 교체	노후화된 기존 무대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수준높은 문화의 장으로 활용
	행복동네 석사동 한마음 음악회	석사동 행복동네 가요제 및 한마음 음악회를 통해 주민화합의 장 조성
퇴계동 주민자치회	문화와 소통이 있는 퇴계동 돌레길	마을 역사 자료 발굴과 개인 기억 재생을 통해 마을 정체성 수립, 주민 참여 작품 돌레길 전시, 돌레길 걷기 행사
	문화동네 퇴계동	마을 내 문화자원 조사, 문화공간 조성, 마을장터 개최, 퇴계천 야외음악회 개최
	청소년을 품은 어미새	민관학 협력 청소년학교 운영, 진로 체험 및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지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1인 거주자 (노년층, 장애인 등)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구축
강남동 주민자치회	강남동 산책로 사용설명서	강남동 산책로 홍보를 통해 이용률 제고, 관광객 유입 증가, 주민건강 증진
	강남마을축제	거리축제, 플리마켓, 재활용장터, 문화체험을 포함한 강남 마을 축제 실행
신사우동 주민자치회	우두벌 프리마켓&텃밭장터	은세대가 함께 만드는 마을장터로 자리매김하여 마을 농산물 판매 촉진·활성화
	다같이 돌아~동네한바퀴!	신사우동 옛 자취, 문화 및 역사를 알아보고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자부심 증대
	소양1교, 역사 돌아보기	소양1교의 역사성을 살펴보고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여 춘천시민들의 인식 전환

##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단위 자치조직이라면 마을공동체는 같은 관심사를 갖는 5명 이상의 모임이다. 반드시 지역적 기반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석사동 주민, 퇴계동 주민, 후평동 주민이 공동체를 결성할 수도 있다.

춘천시는 거주형태가 주로 아파트인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주민공동체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다.

춘천시에서 매년 공동체사업 발굴 공고를 내면 공동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응모하고 공익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공동체에 대하여는 사업 보조금을 지급한다.

주민자치회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 주체는 공동체이다.

춘천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기 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모 선정된 공동체에 대해서는 시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도에 추진한 공동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2021년 추진 50개 공동체 사업 현황>

공동체명	사업명(사업내용)
봄내 한결음	우리마을 한걸음 (장애인식 개선교육, 동네 교통편의 시설 개선 제안활동)
선한사람들	마을가꿈 이웃가꿈 (동면 일대 환경정화 및 경관조성사업(꽃모종 심기, 꽃 가꾸기 활동))
행복동네 푸른하늘	다음을 지키는 주민들 (제로웨이스트 실천 운동(아이스팩 수거함 제작, 지역 주민 간담회))
리프	도시에서 숲을 즐기는 n가지 방법 (도심내 수목을 즐길 수 있는 방안 논의, 시민참여 숲 체험 프로그램)
우리들의비밀언덕 안전지대	돌봄공백 제로 프로젝트 (돌봄환경 설문조사를 통한 워크숍 및 간담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프로그램)

공동체명	사업명(사업내용)
어쩌다목공 2060	마을목공 어쩌다 모인 2060사람들 (다양한 연령층의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목공 프로그램(마을회관 꾸미기, 전시회))
원평 건강복지마을 공동체	원평리 즐거운 인지놀이 마당 (어르신 치매예방, 건강증진, 소통 프로그램(인지놀이, 건강간식 제공))
더불어이주민플러스	우리는 모두 이주민 데이블DAY (이주민 관련 인식 개선 및 이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 교류(영화제, 토크쇼, 유튜브 콘텐츠 제작))
힐링,춘천	힐링, 춘천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마을 유휴공간 활용, 나눔장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성나무채움	우리동네 보물찾기 (마을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한 조사, 신사우동 놀이터 탐방, 지역소통 회의 및 간담회, 놀이 축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우리마을 건강쉼터 (마을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냉장고, 건강체조 교실 운영)
교동수리나눔 공동체	교동 찾아가는 가재도구 수리 (마을 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리 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퍼니타운	청년 바운더리 확장 프로그램(밤피장) (청년들이 함께 하는 소셜다이닝(저녁과 취향 공유), 토크프로그램, 영상감상, 심리퀴즈)
보배로운 마을지원단	보배로운 주민생활 (보배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민화그리기, 주민의견을 수렴한 취미프로그램, 장터 진행)
꿈애락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보드게임, 진로설계 등))
힐링 놀이터	동백꽃마을 속으로 스미다 (방과후 아동 돌봄과 마을주민의 소통 프로그램(그림책 창의놀이, 그림자 연극놀이, 발표회))

공동체명	사업명(사업내용)
노는 언니들	노년의 옹기종기 슬기로운 바른생활 (농촌지역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인문학 강의, 도자기 빚기, 내집가꾸기))
모두의정원	거두리 후하천일원 산책로 가꾸기 사업 (거두리 후하천 일원 수목관리, 묘종 심기, 수목관리 교육)
인공폭포 상가상인회	나무야 너도 춤지? 우리가 예쁜옷을 입혀줄게 (손뜨개 교실 운영, 나무 뜨개옷 제작 및 설치, 발표회)
38문화 마을	38문화마을 만들기 (영화상영, 핸드폰 활용법 및 건강 강좌, 선진사례 견학, 마을소식지 발행, 꽃 가꾸기)
서면머느리 문화공작소	서면머느리 문화공작소 (상,하반기 문화교실 운영, 치매예방 교실 운영)
함께돌봄	공동체로 한걸음 더, 마을로 한걸음 더 (방과후 놀이터(마을놀이터/일상놀이터) 운영, 돌봄관련 교육, 선진사례 견학)
가벼운춘천여행	시민이 찾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춘천여행길 (지역주민이 알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춘천 마을가이드 양성교육) / 시민이 찾아보는 2030 세대의 춘천여행길 신규코스 개발)
드름지기	칠전동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자원순환교육&캠페인, 서울시 새활용 플라자 견학, 재활용 플리마켓)
살구자루	살구꽃 피는 春, 천으로 (한옷과 가구 되살림, 업사이클링 키트 제작, 배포)
춘천시 청소년수련관	효자동 모두의 텃밭 : 쫄쫄따리 (지역 주민과 함께 텃밭 가꾸기, 작물재배, 텃밭 공간 활용 프로그램 진행)
마중물	다시 한번 옥산포길 가꾸기, 옥산포 마을잔치 (옥산포길 환경개선(벽화), 마을잔치 등)
신북농악보존회	하나의 '흥' 모드의 '흥' 신북농악 예술 공동체 (농악 교육 및 공연)



공동체명	사업명(사업내용)
뉴시티코아루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텃밭 분양 및 연계행사 (텃밭가꾸기, 재배한 작물 나눔행사)
요션한신휴사람들	요션 한신 휴 사람들 (요션한신휴 아파트 어르신을 위한 작은 음악회, 자율공부방 운영, 안전 지킴이 활동 등)
신북문화예술 공동체	찾아가는 마을 연극단 프로젝트 (시민주도 연극제작, 순회공연)
아꿈	그루터기 (학교폭력 피해 치유 지원(놀이코칭, 또래 상담부 운영, 전통놀이, 걷기 프로그램))
젊은당숲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힐링 체험마을 만들기 (공동 경작지 조성, 마을 홍보 영상 제작, 수제품 만들기, 선진지 견학)
춘천별빛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아이와 마을어르신이 따로 또 같이 사용하는 세대공감센터 만들기 (소식지 홍보, 놀이활동, 입식텃밭, 방문 미용실 운영)
요션시장사람들	요션시장 사람들 (요션시장 환경개선(청소), 상인 의식개선(교양강좌))
칠전 대우 2차 아파트	이웃사촌만들기 프로젝트(제2회) (이웃칭찬하기, 프리마켓, 보물찾기, 장기자랑 등)
동산 아파트	행복한 꽃동산 (화단조성, 팔주머니 만들기)
금호타운아파트	어르신을 위한 경로행사, 독거노인 돌봄 행사 (밴드공연 2회, 반찬나눔)
우두NH 2단지아파트	이웃과 같이 하는 슬기로운 아파트 자치 문화생활 정착 (육아토크콘서트, 운동, 인라인스케이팅, 축제, 만들기 체험)
한숲시티 e편한세상	다가치 한숲 (프리마켓,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거두부영 1,2단지 아파트	사계절 꽃 잔치 (화단조성, 플라워 디퓨저 전시)

공동체명	사업명(사업내용)
춘천 뜨란채 아파트	행복한 우리 아파트 만들기 (놀이터담장꾸미기, 음악회)
해강아파트	작은도서관 & 별빛축제 (도서관 조성 및 꾸미기, 아파트 배움터, 등불 축제)
퇴계주공2단지	에너지 절약으로 숨쉬는 2지구 (에너지교육, 저탄소 실정부스운영,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효자주공8단지	청결,안심,행복한 효자8 마을가꾸기 모임 (계단 물청소, 입주민 예방교육, 화단, 텃밭 가꾸기, 조명달기)
(신동면) 비단병풍	수수(手手)한 넉넉살이 (수수한돌봄, 자전거 문화교실)
사북면 마을교육 협의회(어우름)	서로를 어우르는마을 (청소년자치프로젝트, 마을꾸미기, 전래놀이 한마당)
칠전동마을돌봄 교육공동체	들락날락 돌봄 (공유서가, 공유돌봄 등)
퇴계동동	다다다 꾸러기 자람터 (어린이농장, 구해줘!방학)
(후평3동) 호반 안심마을공동체	호반안심마을만들기 (어린이작업장&돌봄카페, 방학단기돌봄)

## 자치단체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사업 건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연초 또는 수시로 읍면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의 건의한 사업 중 실현 가능한 것을 택해 실시하는데, 이런 경우도 주민 제안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종류의 건의는 길을 넓히거나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것과 같이 생활인프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건의를 채택하는 경우 세부계획 수립, 예산편성, 시행 전반은 모두 행정 공무원들이 수행한다.



王懿涵  
保定高新区小学  
三(5)  
10岁



指导教师: 孔玉丹

(王懿涵)



2021

춘천시 제안제도 참여 및 운영실무 안내서

**당신이 상상하는 춘천을 보여주세요**

발행처 춘천시  
발행인 춘천시장

저 자 강용범  
제 작 춘천시 시민주권담당관

발행일 2021년 12월 24일  
발간등록번호 72-4180000-000137-01  
ISBN 979-11-969030-8-4

디자인·편집 도서출판 산책  
강원도 춘천시 우두강독길 23  
Tel\_033) 254-8912 / E-mail\_book4119@hanmail.net

※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춘천시에 있습니다.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시민주권담당관**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TEL 033.250.4108 [www.chuncheon.go.kr](http://www.chuncheon.go.kr)

